

한국은행 구미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6. 9. 5.

제 안 자 : 김영호 의원 외 9인

1. 주 문

- 감사원 권고를 이유로 한국은행 구미지점을 폐쇄코자 함에 따라, 이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폐쇄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코자 함.

2. 제안이유

- 최근 감사원이 한국은행의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경영 합리화를 권고함에 따라 한국은행 포항본부 및 구미지점 폐쇄 계획이 발표됨
- 이는 지역 본부별 총액한도 대출 자금 축소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 곤란은 물론 원거리 현금 수송 등으로 대형 금융사고 발생 우려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될 뿐만 아니라
- 지역금융 동향 등 각종 통계자료 부실 우려는 물론, 구미 위상 추락 등 지역 경제가 궁지에 몰릴 것이 자명하여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를 강력히 반대하며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코자 함

3. 참고사항

- “붙임” 건의안 참조

『 한국은행 구미지점 존치를 위한 』 건의안

한국은행이 감사원 권고를 이유로 구미지점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책기조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1986년 구미주재 사무소를 설치한 이래 구미·김천·상주·칠곡 등 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구미는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의 디지털·IT산업의 중심, 경북은 물론 영남경제의 중추 도시로서 경북 서부권의 산업과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한국은행의 존치는 불가피하다

올해 상반기 구미시 수출 실적 150억 달러는 대구·경북의 71.8% 전국의 9.6%나 된다. 또한 무역수지흑자 부문은 98억 달러로 대구·경북의 123.2%, 전국의 138.7%를 차지한다. 이러한 막강한 산업 경쟁력을 갖고, 나라 경제에 효자 역할을 하는 도시에 걸맞게 국책은행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 시키지 못할망정 폐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규모가 작은 목포가 전남본부로 승격되는 반면 포항본부와 구미지점을 폐쇄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기업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로 시민들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그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미지점 폐쇄를 강행한다면 구미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전원은 한국은행 구미지점 존치를 위해 39만 구미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 현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마당에 한국은행 구미지점을 폐쇄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경쟁력 제고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로, 시대 역행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 경제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들을 홀대하는 차별적인 발상과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는 상반되게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필요한 기관을 폐쇄하려는 계획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철회를 위하여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전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건의안을 즉각 수용하라.

2006. 9. 6.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